

# 영화와 영화소설 동시개봉 그 각색과 번안과 창작

## 영화홍보 일환으로 시작돼 이젠 원작없는 영화소설까지

소설가인 K씨는 82년, 고등학교 2학년때 당시 상영중이던 「개인교수」를 소설책으로 읽었다. 일주일이면 왼쪽 맨앞자리 학우에서부터 오른쪽 뒷자리 친구까지 죄다 돌려볼 수 있었다. 책의 앞부분과 소설 중간중간에 ‘충천연색’의 스틸사진이 꽤 자극적이었던 것으로 그는 기억한다. 「개인교수」를 소설화한 사람은 “우리나라 유일의 전문·전업 ‘영화소설가’”라고 자부하는 한명준씨. (원작없는 영화를 시나리오와 영화만 보고서 소설화하는 작업을 관계자들은 ‘각색’ 혹은 ‘번안’ 등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지만, 영화화된 원작소설의 번역과 아울러 편의상 ‘장르’ 개념인 ‘영화소설’이라 부르기로 한다) 한명준씨는 당시 그 작업에 5일이 소요됐다고 말한다. “출판사 직원이 우리집에 같이 머물면서 원고를 쓰는대로 조판소에 달려갔다”고 전한다.

### 영화의 ‘팬시상품’으로서의 영화소설 많아

그의 최초의 영화소설은 71년에 출간된 「초원의 빛」이다. 그 당시에 영어로 된 시나리오도 구하지 못한 채 영화관에서 두어번쯤 관람한 뒤 작업에 착수했다고 한다. 세로쓰기, 활자조판 시대였고 책부피도 비교적 얇았으므로 원고지 700여매 정도면 한 권의 책으로 묶을 수 있었다. 그때, 그는 한달에 4권의 영화소설을 써내기도 했다. 외국영화의 자막을 번역한 정도의 자료만 수중에 쥐어져도 일이 한결 수월해지던 시절의 영화소설 풍속도인 것이다.

20년 넘게 국내유일 ‘전문영화소설작가’인 그는 영화소설이 문학의 庶子 취급을 받는 게 다소 못마땅하다. “영화화된 원작소설을 번역하는 일은 어학능력만 있으면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영화소설은 반 이상이 픽션인 또하나의 창작”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우리나라 영화중에서 불완전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곧 촬영에 들어가는 것일 경우, 영화소설가의 작업은 ‘각색’이나 ‘번안’의 수준이 아니라 창작과 진배없다. 시나리오가 도중에 바뀌는 일이 흔한데, 영화의 개봉과 함께 영화소설이 출간되려면 바뀐 시나리오를 참조할 틈이 없는 것이다. 그는 “외국에서는 영화소설이 원작대접을 받는 경우도 많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영화에 따르는 괜찮은 영화소설이라면 하나의 장르로서 존중받게 되기를 소망한다. 그는 영

화에는 없는 「초원의 빛」과 「사랑과 영혼」의 ‘속편’을 쓰기도 한 것이다.

다소 낭만과 모험이 허여된 과거의 영화소설에 비해, 저작권법이 시행되고 일급의 마케팅전문가가 포진한 첨단산업으로서의 영화산업체들이 줄을 이으면서부터는 영화소설은 말 그대로 영화의 庶子로 전락하기도 한다. 영화사들은 흥행영화의 캐릭터를 살린 팬시상품을 개발하는 등 복합홍보전략을 수립하고, 영화소설 또한 철저하게 그 전략의 일환으로 출간되는 것이다. 영화소설은 영화홍보전략의 총아와도 같은 매체가 되었다. 영화가 개봉되기 이전에는 광고의 크기에 대한 규제가 없다가 개봉되면 일정한 크기로 제한되는 등의 영화법이 시행될 때는 광고비가 영화에 비해 저렴하고 크기에 구애받지 않는 영화소설이 홍보를 대신했다. 영화광고는 개봉 1주일 전부터 할 수 있다는 영화법이 시행될 때는 개봉 몇 주일 전에 영화소설을 만들어 대대적인 영화홍보를 대신케 했다. “책은 안 팔려도 영화홍보비는 빠진다”는 게 영화계 일각에서는 정설로 굳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몇 종의 영화소설이 많은 독자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영화사들은 출판시장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됐다. 요즘의 대부분의 영화수입업체에서는 영화와 더불어 시나리오에 대한 출판권을 함께 사들이는 추세가 그것이다. 그래서 몇몇 영화사들은 아예 출판사등록을 한 뒤, 영화홍보전략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영화소설 자체의 ‘홍행’을 아울러 과학적이고 조직적으로 도모한다. 출판사등록을 하지 않은 영화사들은 출판사에 시나리오판권을 팔기도 한다. 국산영화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영화소설이 영화홍보의 총아 구실을 하고, 운때가 맞으면 영화소설이 효자 노릇도 하게 되자 90년대 들어서는 영화와 영화소설의 ‘동시개봉’이 일반화됐다. 상영되는 영화마다 영화소설이 나오다보니 최소한 광고비는 빠진다는 정설이 깨지고 광고비를 가중시키는 영화소설이 늘어나게 되었다. 출판사는 출판사대로 영화의 덕을 보지 못하는 영화소설이 늘어나고 있다고 푸념한다.

그들의 푸념은 원작소설이나 시나리오에 대한 정식판권계약을 맺은 영화소설에 국한된다. 아직도 해적출판이 난무하는 분야가 영화



「쉴더리스트」의 한 장면.

소설인 것이다. 영화가 잘 팔리려면 최소한 영화가 상영되는 동시에 서점에 깔려 있어야 하는데, 원작소설과 시나리오에 대한 판권문제, 영화의 스틸을 책속에 수록하는 문제에 대한 일원화된 협상창구가 없는 마당에 “본의 아닌” 저작권법 위반사태가 속출한다. 국산영화도 마찬가지. 국내최고의 여배우가 주인공 공으로 등장한 영화를 매출판사는 절자를 밟아 책으로 퍼냈다. 영화사의 협조로 스틸사진도 듬뿍 수록했다. 그러나 신문광고에서의 그 여우의 얼굴사진은 필요에 의해 영화속의 한 장면이 아닌 사진을 썼다. 여러가지 이같은 복잡한 저작권법상의 문제에 대해 출판사측은 잘 모르겠다는 투고, 때로는 알면서도 위반하는 일이 허다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말이다. “영화소설의 해적출판이 법의 심판대 위에 오른 적은 없지만, 시한폭탄과도 같다”.

### 시한폭탄같은 영화소설의 해적출판

영화소설의 원고료는 ‘노는 작가’들이 많아 서인지 형편없이 저열하다. 원고지 매당 1000원짜리 일도 있고, 통상 2000~2500원 정도의 수준이며 수입영화사에 5%의 로열티를 지급하는 조건이 보편화돼 있다. 국내영화를 소설화하는 데 작가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촬영기간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통 2, 3개월 정도. 외국영화의 소설화 혹은 원작의 번역에 주어지는 시간은 대중없다. 자막의 번역문만 보고 일주일 이내에 해치우는가 하면, 여러 사람이 원작을 분책하여 해치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대개 번역 혹은 소설화에 1개월, 제작기간

보름 정도를 잡는다고 한다.

최근 출간된 「쉴더리스트」(크리스찬 윌드)는 매우 모범적인 영화소설로 꼽힌다. 이 출판사는 “유대인 이해가 성경 이해의 한 관건이라고 믿는 근본주의적 입장”을 견지했으므로, 오래전부터 스피버그의 「쉴더리스트」를 주목해왔다. 유대교 랍비들이 유대교문제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시위를 벌였다는 外信을 접한 것이다. 그 영화의 원작이 있다는 정보는 지난해 12월 13일자 「타임」을 보고나서 얻었다. 원작은 82년에 출간됐으며 영국의 부커상과 미국 L.A타임즈상을 수상한 수작임을 금세 알아냈다. 87년 이전의 작품이므로 저작권법상의 의무조항은 비껴났지만 영화소설을 수록하기 위해 UIP영화사와 스틸사진제공 계약을 맺었다. 올해 1월 3일에 책을 입수하여 3등분으로 분책, 1달만에 번역을 끝냈다. 원고를 수합하여 편집부원 2명이 각각 1주일씩 인명·지명 등의 용어통일, 교열을 하면서 동시에 편집이 진행됐다. 그 과정에서 특별한 돌발사고는 없었지만, 겨울철이 교과서출간 때문에 종이값이 오르는 계절인데다 작년말부터 중국에서 ‘제지특수’가 일어나 종이를 구하는 데 약간의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약간의 종이값이 더 들었을뿐” 인쇄·제본이 계획대로 맞물려 돌아갔다. 책이 출판사 창고에 입고된 때가 2월 25일. 영화 「쉴더리스트」는 3월 5일에 개봉됐다. 많은 인파를 모으고 있는 중이다. 영화소설 「쉴더리스트」는 베스트셀러 10~20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김중식 기자